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6. 10. 4(화)	담당부서	철강화학과
담당과장	김종철 과장(044-203-4280)	담 당 자	안재훈 사무관(044-203-4286)

미국,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 재심 예비판정 결과 발표

- ① 원심 최종판정 대비 약 10%p 낮은 마진율 적용, ② 관세예치금 66백만 달러 환급(최종판정 유지시) 등으로 미국 수출 회복 기대

□ **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**는 주미대사관, 업계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**미 상무부**의 **1차 년도**('14.7.18~'15.8.31, 13.5개월) **연례재심 반덤핑 예비판정**에서 원심 최종판정 대비 **최대 9.83%p 인하**한 **반덤핑 마진율**을 **적용할 예정**이라고 밝혔다.

○ 이번 결과가 연례재심 최종판정('17.4월 잠정)에도 **유지**되거나 **추가로 마진율을 인하**할 경우, 1차년도 기간에 납부한 반덤핑 관세액 중 **마진율 차이**(예비판정 유지시 총 66백만 달러(추정)) 만큼 **환급**받게 되어,

- 앞으로 우리 업계의 미국 **수출 부담이 크게 완화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 한국산 유정용 강관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>

	원심최종('14.7.10)	재심예비('16.10.7)	마진율 차이	환급액(추정)
넥 스 틸	9.89%	8.04%	△1.85%p	총 66백만
세아제강	12.82%	3.80%	△9.02%p	달러
현대제철	15.75%	5.92%	△9.83%p	(업체별로
기 타	12.82%	5.92%	△ 6.9%p	6~19백만 달러)

* 재심 조사대상기간('14.7~'15.8월) 업체별 수출비중을 반영하여 환급액을 추정

□ 당초 미국은 한국산 유정용강관('15년 미국 수출 3.7억 달러)에 대한 반덤핑 **원심 최종판정**('14.7월)에서 **예비판정**('14.2월, 마진율 0%) 대비 **훨씬 높은 마진율**을 부과했다.

○ 이에 대해, 정부와 업계는 미측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 ①**미국 국제무역법원(CIT) 제소***('14.9월), ②**세계무역기구(WTO) 제소****('14.12월), ③**연례재심 대응**('15.11월)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.

*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원심 최종판정 마진율 산정 방식의 부적절, 충분한 정보 제출 기회 미부여 등을 이유로 미국 상무부에 재조사를 지시('15.9.2) → 미 상무부는 원심 최종판정 마진율을 3.98~6.49%로 재산정 ('16.8.31 이후 통관물량에 적용)

** 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해결절차: '17년 상반기 패널보고서 발표 예정

□ 참고로,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미국 수출은 셰일가스 개발 등 수요 급증으로 크게 증가했으나, '15년 이후 저유가 기조에 따른 **에너지 개발 수요 급락***과 **반덤핑 조치** 등으로 인해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.

* 미국 원유채굴장비(oil rig) 수(연평균) : ('14) 1,862 → ('15) 977 (전년비 △47.5%)

< 참고 : 유정용 강관 미국 수출 통계 >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	'12	전년비	'13	전년비	'14	전년비	'15	전년비	'16.18	전년비
금 액	929	△13.6	864	△7.0	1,415	63.8	374	△73.6	165	△45.5
비 중	25.2	-	24.7	-	27.2	-	11.8	-	9.1	-

※ 비중 : 對미 철강재 수출금액 중 유정용강관이 차지하는 비중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안재훈 사무관(044-203-4286)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